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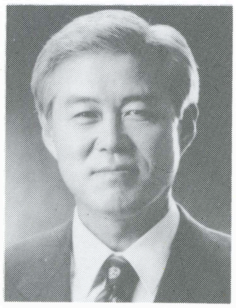
외포리 곶창굿

일시 · 1996년 10월 17일(목요일)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실내체육관

인 천 광 역 시

머리말



최 기 선
인천광역시장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성남시에서 개최됨을 250만 인천광역시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신 전국의 민속예술인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지혜 그리고 애환이 투영된 우수한 민족문화를 창조·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오랜 역사동안 이룩된 훌륭한 민족문화를 소중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자 의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36회를 이어온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그동안 각 지방마다 전래되어온 전통문화를 발굴·재현하는 장으로써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예술창조에 밑바탕이 되어 왔으며 우리 민족예술의 혼을 오늘에 되살려 보편화·생활화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 우리 시가 출품한 "외포리 곶창굿"은 강화 외포리곶 주민이 하나가 되어 태평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 성격을 띤 대동굿으로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이 투영된 향토색 짙은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을 통하여 전국의 민속예술 관계자와 경기도민 여러분께 항도 인천의 어제를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우리의 멋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조 흥 윤
한양大 교수
문화인류학

우리나라의 이름난 전통적 마을굿은 대개 그 정확한 유래를 전하지 않는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통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 면면히 지켜져 내려오기에, 정확히 언제부터 놀아졌는지는 관심밖의 일이고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외포리 곶창굿의 정확한 유래도 현재 미상이다. 그러나 이 마을굿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은 여러 면으로 넉넉히 짐작된다.

1940년대 초부터 소임을 맡아 곶창굿을 주재해 오고 있는 노인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이 굿이 놀아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옛날 할아버지대에도 해내려오던 굿이라는 말을 그 때 들었다 한다. 곶창굿의 중심이 되는 상산당(上山堂)의 당주를 따져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마을의 구전에 의하면 상산당의 당주는 고기운(1879~1944)·조복음(1880년대 중반~1930년대 말)·유성 할아버지(1810년대~1880년대 말) 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로써 외포리 곶창굿이 조선조 후기 18~19세기에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산당의 주신(主神)은 득제장군 또는 득태장군이다. 어느 역사적 인물이나 특별한 신령이 한 지역과의 어떤 깊은 인연으로 인하여 마을의 수호신령으로 모셔져야 마을제당(祭堂)이 성립된다. 그렇게 주신과 제당이 갖추어지면서 마을굿이 열리게 됨을 헤아리면, 외포리 곶창굿은 득제장군을 모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득제장군이 누구인지 현재 밝혀져 있지 않다. 어떤 이는 그를 임경업 장군으로 억측하기도 하고 또 외포리를 수호하다 전사한 의병이나 병졸의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한다.

강화의 제당 가운데는 강화면 갑곶리 진해(鎭海) 마을의 현충당(옛 만수당), 매음리(煤音里) 어유정(魚遊井) 마을의 긴대서낭당 등 임경업 장군을 주신으로 모시는 것이 여럿 있다. 임장군이 강화일대에서 마을을 수호하고 선업

유래와 특징

(船業)의 번성을 도와준다 믿기에 막연히 득제장군을 임장군과 동일시하나, 이것은 곤란하다.

외포리 상산당의 주신은 엄연히 득제장군이라는 고유명사로 모셔져 오고 있는 터이다.

옛날 인근마을에서는 외포리 상산당의 굿이 끝나야 이어 굿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상산당 당신(堂神)의 신격이 매우 높았던 것임을 말한다. 서해안 중부지역에는 고려 때의 장군과 관련된 제당이 적잖다. 고려조는 왜구의 침입이나 외적과의 항쟁이 유난히 우심했던 때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득제장군은 고려때 이곳에 연고를 가진 애국충절의 장군일 가능성이 높다.

외포리 곶창굿은 어업에 종사하는 정포(井浦) 마을과 농업에 종사하는 대정(大井) 마을의 풍어와 풍농을 함께 기원하는 도당굿류에 속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경기 지역의 도당굿 형식을 취하면서 풍어를 위한 선주굿 한거리를 별도로 잡아 있다. 그리고 상산당을 상당(上堂)으로 하고 산중턱에 청솔문을 세우고 그 아래쪽에 황토를 깐 곳을 아랫당이라 하여 상당과 하당의 형태를 갖추어 있다.

3년걸이로 대개 음력 2월초에 곶창굿을 거행하는데, 마을대표와 당주가 협의하여 길일을 택하고 소임을 결정한다. 상·중·하 소임별로 인원과 역할이 잘 짜여 있고, 경비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추렴한다. 각 소임과 무당들이 옛법에 따라 곶창굿의 제반과정을 진행하여 사흘간 굿을 논다. 굿은 매일 오후 4시까지 하고 밤에는 마을주민의 놀이판이 벌어지니, 전통적 향토축제의 모습을 보인다.

서울·경기 지역의 도당굿이 조선조를 거치면서 대부분 유례화(儒禮化)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곶창굿은 전통적 마을굿의 형태와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특징적이다. 그렇더라도 무(巫)를 탄압하던 조선조 동안 이 곶창굿은 피치 못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걸립 내지 지신밟기가 생략되어 버린 점, 매년 정기적으로 놀던 것을 격년 또는 3년만에 한번 개최하게 된 것 등이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외포리 곶창굿의 인원구성과 역할분담 및 법도 등이 옛굿의 전통을 그래도 많이 지키고 있다.

굿기간 동안 밤이면 마을사람들이 놀이판을 벌이고 20년 전만 해도 원근에서 구경꾼이며 장사치가 몰려들었던 바, 옛날 이 굿이 대단한 축제로 놀아졌음을 알게 한다.

외포리 상산당의 당주였던 조화순(1916~1994) 만신의 뒤를 이어, 외포리 출신인 그녀의 신딸 정정애가 이 굿을 전승하고 있다.

수살굿

대동 해변 양쪽에 수살목(솟대)를 한개씩 세우고 간편한 제물을 진설한다. 잡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무당들과 소임이 수살굿에 참여하며, 바다에서 사고를 막고 잡귀를 풀어 먹이며 용왕님을 맞이하는 굿이다.

초부정 초가망 장군 대신굿

무당들이 대동산 당사에 올라가서 당할머니신을 모시고 대동 부정을 풀어낸다. 외포리 곶창굿에는 득제장군신(得濟將軍神)을 모시고 대신(역대 만신)을 맞이하여 대동안녕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굿이다.

제석굿

제석님, 불사님, 칠성님을 모시고 풍년풍어를 기원하며 대동 자녀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굿이며 이 굿에는 부정한 동민(상제, 산모, 모든 부정한 동민)은 참여하지 못한다.

선주굿 기내림굿

상산 당사 앞에 대동기(旗), 장군기(旗), 뱃기(旗)가 순번대로 세워 있으며 기 앞에 꽃반상(床)에 백미쌀과 술잔을 진설해 놓는다. 무당이 대동기와 장군기, 뱃기에 축원 행사가 끝나면 기내림 굿으로 이어진다. 꽃반상의 쌀을 지정된 장소에 쏟아 놓고 기내림을 한다. 고사 제물을 받아서 각자 자기 배에 가지고 가서 고사를 지내는 굿으로 바다에서 배부리는 사람들의 평안과 바다 장원(풍어)을 기원하고 주민의 명과 복, 풍년 등을 두루 기원하며, 선주에게 공수도 내린다.

별상 대감굿

새별상(외포리에서는 남(男)별상을 새별상이라고 한다.) 장군대감, 별상대감, 신장대감을 모시고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굿이며, 이 굿에는 육찬(돼지고기)을 제물에 진설한다.

군웅굿

상신군웅, 본향군웅, 용신군웅 대동 여러 군웅신을 모시고 농촌의 풍년과 바다에서 조업 중 인명피해와 사고예방을 기원하는 굿이며 군웅신이 대동의 잡신을 막아내기 위하여 화살에 떡을 꿰어 활을 쏘고 놋양푼을 입술에 붙이며 대동의 액을 막아내는 행사에 이어 사슬을 세우는데 다른 지방과 달리 외포리 군웅굿에서는 닭사슬을 세운다. 설대에 닭을 꿰서 떡시루전에 세우는 사슬이며 이 사슬이 잘 세워져야 대동이 편안하다 한다.

뒷전 한마당 놀이굿

곶창굿에 불참한 여러 잡귀(잡귀,수살귀, 영신)을 잘 풀어 퇴송하고 대동안녕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축제 한마당 놀이에 농어민을 막론하고 노소가 어울려 노는 축제굿이다.

출연자 배역

총연출 강창길

지 도 정정애

배 역	성 명	성 별	연 령
무격(巫格)	강창길	남	68
무격(巫格)	정정애	여	65
무격(巫格)	고순여	여	66
무격(巫格)	강순애	여	61
악사(樂士)	김연숙	여	37
악사(樂士)	장석철	남	61
대동당주	최춘만	남	55
당주 마누라	유준남	여	69
대회기수	전경석	남	35
대동기 기수	김진원	남	57
대동기 기수	송경옥	여	64
대동기 기수	허명복	남	65
대동기 기수	김정렬	여	58
대동 고사상	윤정화	여	74
장군기 기수	김필선	남	72
장군기 기수	최은순	여	55
장군기 기수	이연옥	여	58
장군기 기수	김연분	여	71
장군 고사상	김학단	여	60

배 역	성 명	성 별	연 령
선주	차용남	남	70
선주 마누라	이규분	여	64
선주	김재석	남	74
선주 마누라	송경남	여	63
선주	조헌구	남	78
선주 마누라	정순원	여	65
선주	김태희	남	68
선주 마누라	이정순	여	71
선주	김광희	여	27
선주 마누라	남인식	여	65
선주	박성모	남	70
선주 마누라	송경희	여	66
선주	오옥자	여	56
선주 마누라	김순정	여	41
선주	김언자	여	50
선주 마누라	정옥순	여	61
선주	차연희	여	40
선주 마누라	김은옥	여	49
도사공	차희동	남	70
영자	김창규	남	71
선원	박이섭	남	57
선원	박희양	남	74
선원	김영의	남	58
선원	윤영구	남	67
대동소임	차흥윤	남	70

• • • • • •

외포리 곶창굿

(96. 10. 17)